

한국사회복지학

일반논문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에 관한 종단적 연구*

—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의 비교 —

이상정⁺

(이화여자대학교)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노충래

(이화여자대학교)

우석진

(명지대학교)

전종설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요약]

가정외보호 서비스는 그 유형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정외보호 유형인,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서비스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으로부터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49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5년간 보호 만족도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더 나아가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 변화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층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그룹홈 아동의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2924375)

⁺주저자, ⁺⁺교신저자

보호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순이었다. 둘째,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그리고 가정외보호 서비스 유형이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 변화 궤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가정외보호 적응을 돕고 보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가정외보호 서비스, 보호 만족도,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원가족이나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의 보호 및 양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정외보호 체계는 아동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그리고 가정위탁의 형태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학대, 부모의 이혼, 기아, 가출 등의 이유로 발생한 요보호 아동은 약 4,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400명 이상은 양육시설에, 약 500명은 그룹홈에, 그리고 1,200명 이상은 가정위탁으로 배치되었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6). 전국 243개의 양육시설에는 12,821명의 아동이 보호받고 있고(보건복지부, 2016a), 480개의 그룹홈에는 2,636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2016), 11,043개의 위탁가정에서 14,340명의 아동(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6)이 보호받고 있어, 현재 약 26,500명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그리고 가정위탁으로부터 대리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가정외보호를 받는 아동은 입소 이전의 가족문제나 부정적인 인생 경험 등으로 심리적인 충격과 외상은 물론 원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타인과의 애착관계 형성과 사회 적응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정원철·이화명, 2014; Courtney and Zinn, 2009; Daining and DePanfilis, 2007; Leve et al., 2012). 또한, ‘가정외보호’ 아동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결핍되어 있는 유익한 자원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외보호 체계가 갖는 약점이다(Courtney and Zinn, 2009; Gunnar et al., 2000). 이러한 아동의 개인적 문제와 가정외보호 체계의 약점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출, 대인관계 위축, 학교 및 학습 부진 등 아동의 부정적 발달을 초래할 수 있다(정선옥, 2002; USDHHS, 2002). 실제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가출률은 일반 청소년의 가출률보다 약 7배 이상 높고(정원철·이화명, 2013), 가정외보호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석주영·안옥희·박인진, 2003), 낮은 학업 성적과 학업성취도(Brooks and Barth, 1998; Courtney and al., 2001)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 개인의 어려움과 가정외보호 체계의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고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 입장의 가정외보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

외보호 서비스는 그 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James, 2011), 가정외보호 서비스의 직접 이용자인 아동의 보호 만족도를 평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정외보호 체계의 대리보호 효과를 여러 방면에서 높일 수 있다(Delfabbro et al., 2002).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아동관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게 하고(Johnson et al., 1995), 가정외보호 종사자들에게는 아동의 느낌과 태도를 포착하게 함으로써 실천 현장에서 서비스의 실제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Johnson et al., 1995). 뿐만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삶을 지각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Delfabbro et al., 2002).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외보호 서비스에 대한 보호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정외보호 유형인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그리고 가정위탁으로부터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로 다른 가정외보호 유형을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가정외보호 서비스의 직접 수혜자인 아동의 보호 만족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아동의 관점에서 그들의 욕구를 반영한 가정외보호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가정외보호 유형 비교 연구

가정은 아동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속하게 되는 사회체계로서,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환경이다(김경희·반정호, 2005). 그러나 부모의 사망, 이혼,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부모나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 사회적 일탈행위, 정서적 혼란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경우, 부모와 가정을 대체할 사회적 보호 서비스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 기능을 사회적으로 담당하는 다양한 대체가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가정외보호 서비스 유형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그리고 위탁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희·반정호, 2005).

아동복지법 제52조는 아동양육시설을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 기능을 위한 생활서비스, 건강교육과 훈련, 상담의 기능을 하기 위해 상담·훈련서비스, 지역사회나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동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 침실 1개 정원은 3명 이하의 시설 설비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검사·치료실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종사자는 시설장 1명, 임상심리상담원과 간호사는 아동 30명 이상일 경우 각 1명, 생활복지사는 아동 30명당 1명, 30

명을 초과할 경우 2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이 밖에 조리원, 영양사, 사무원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보건복지부, 2016b).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그룹홈(법상: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대규모 집단시설 분위기가 아닌 소규모 가정형태로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지난 30여 년 동안 그룹홈 수와 지원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보건복지부, 2016b). 보호아동은 5인을 기준으로 7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아동양육시설과 공통으로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면적,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등의 생활환경을 규정하고 있다. 종사자는 시설장 1인과 보육사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고, 여러 개의 그룹홈이 한 주거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을 지역사회 내 낙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룹홈의 운영 프로그램은 자립 능력 향상,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학교와의 관계 형성, 지역내 자원 활용의 영역에서 그룹홈 운영 매뉴얼에 따라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보호 및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요보호아동을 위탁 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2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의 경우,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위탁 유형에는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일반 가정위탁의 형태가 있으며,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소득 수준, 위탁부모의 나이, 위탁아동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자녀 수, 정신질환 문제 등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탁가정에는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생계비, 심리치료비, 각종 보험, 전세자금 등이 경우에 따라 지원된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과 같은 물리적 주거 환경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가정위탁 1세대당 약 1.3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6).

아동양육시설은 안정된 가정적인 분위기의 아동 보호를 지향하는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에 비해 대규모의 형태로 운영되며 1명의 대리 보호자 또는 종사자가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은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아동의 주거 환경과 시설 종사자의 자격과 기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일반가정과 가장 흡사한 형태의 가정외보호 서비스인 가정위탁은 가장 적은 수의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함으로써 시설보호에 비해 보다 개별화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보호자의 전문성이나 주거 환경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탁 가정마다 그 보호 환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 가지 대표적 가정외보호 서비스 유형 중, 그룹홈은 종사자 수에 대한 아동 비율과 규모 면에서 아동양육시설보다는 작고 가정위탁보다는 크다. 가정적인 분위기를 지향하지만 아동복지시설로서의 규정을 따르며 지역사회 내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그리고 가정위탁 모두 요보호 아동의 보호를 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규정과 아동이 서비스를 받는 물리적·심리적 환경은

상이다. 따라서 가정보호 유형에 따라 그 보호 효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가정보호 서비스의 보호 효과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각각의 가정보호 유형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조사한 반면, 서로 다른 가정보호 유형을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특정 가정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심리·정서·사회적 발달 관련 문제점이나 (노혜련·장정순, 1998; 권세은·이순형, 2002; 석주영 외, 2004), 양육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거시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이배근, 1989; 이송이, 1999; 김지숙·서영숙, 2002; 양심영, 2003; 하승민·임동호, 2006). 서로 다른 가정보호 서비스를 비교한 연구는 희소한 가운데, 양육시설과 가정위탁에서 입양 전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을 비교한 연구는 양육시설 아동의 발육지수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보다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가정보호 환경이 아동의 신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경희·반정호, 2005).

「한국가정보호아동패널」을 이용하여 가정보호서비스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행동 발달을 비교한 연구들 가운데, Kang 외(2014)는 우울감, 공격성, 비행, 그리고 학교 적응 면에서 양육시설 아동보다 가정위탁 아동이 나은 결과를 나타냈음을 보고하였고, Lee 외(2017)는 친인척 가정위탁을 받는 아동의 학교적응이 시설아동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나 그룹홈 아동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동 스스로 느끼는 변화를 통해 운영성적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그룹홈이 양육시설보다 운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외, 2012). 제시된 연구 결과들은 가정보호 환경에 따라 보호 효과에 차이가 있고 특히 양육시설이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보다 아동에 보호 효과가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들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1, 2차년도 자료에 국한되어 장기적인 관점의 가정보호 서비스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정보호 유형인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그리고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만족도를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는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그리고 가정위탁의 보호 만족도를 비교하는 최초의 실증적 연구이며, 우리나라 가정보호 보호 서비스 개선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2) 가정보호 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가정보호 시스템이 발달한 외국의 경우, 서비스의 수혜자인 아동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평가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강조해 왔고, 아동이 느끼는 보호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가정보호 아동은 불행하며 그들이 처한 생활환경에 불만족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Minty, 1999; Chapman et al., 2004), 많은 연구들이 요보호 아동이 가정보호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모든 요보호 아동이 그들이 처한 가정보호 환경에 불만족할 것이라는 가설은 부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해 오고 있다(Dunn et al., 2010).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이 가정과 같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에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Johnson et al., 1995; Wilson and Conroy, 1999; Chapman et al., 2004; Fox et al., 2008), 거주시설 또는 그룹홈과 같은 그룹형태의 보호서비스와 가정위탁을 비교한 소수의 연구

들은 그룹 형태의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보다 가정위탁 아동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Gil and Bogart, 1982; Delfabbro et al., 2002). 한편, James(2011: 320)는 그룹형태의 보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임을 지적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동복지 시스템의 장점을 수용하고 배울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정외보호 유형은 아동의 보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Dunn et al., 2010). 또한 원가족과의 충분한 만남과 높은 횟수가 아동의 가정외보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Festinger, 1983; Fanshel et al., 1990), 오랜 가정외보호 기간이 대체 가정에 대한 애착도를 높임으로써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ranshel et al., 1990). 최근의 한 연구는 학대 유형이 보호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는데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보다 정서적·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이 현재의 가정외보호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unn et al., 2010). 가정외보호 시스템의 오랜 역사에 비해 가정외보호 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가운데(Dunn et al., 2010), 외국의 사례에서는 가정외보호 유형, 원가족과의 만남, 가정외보호 기간, 그리고 학대 유형이 가정외보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가정외보호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유일하게 노충래 외(2009)는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회귀 분석을 통해 그 영향 요인을 밝혔다. 자아존중감, 주양육자의 스트레스, 가정위탁보호센터서비스 만족도, 그리고 위탁부모의 관심도가 보호 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양육자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정위탁보호센터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위탁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보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가정위탁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양육시설과 그룹홈 아동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

이 밖에 요보호 아동의 직접적인 보호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보호 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의 요보호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고 영향 요인을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정원철과 이화명(2014)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현재 연령이 높을수록, 입소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의 시설 적응도가 높아졌으며, 같은 시설 형제가 있는 경우, 원가족과의 연락 빈도가 낮을수록, 피학대 경험 수준이 낮을수록 시설 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내에서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그리고 시설직원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시설 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이 느끼는 운영성과의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나는 시설에서 밥을 먹으면서 건강해졌다” 등의 문항으로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 각각의 운영성과에 대한 요인을 조사하였다. 그룹홈의 운영성과에 영향 요인은 낙인감, 학교생활적응도, 사회적 지지로 나타난 반면, 아동양육시설의 운영성과의 영향 요인은 낙인감, 주양육자의 태도, 친구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외, 2012).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외보호 만족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고, 종속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요인에도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아동의 개별적인 요보호 특성, 원가족 또는 또래 관계 등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가정외보호 서비스 유형과 시설 내 보호자와의 관계와 같은 가정외보호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아동의 요보호 경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조사하였다. 아동의 보호 만족도 요인 조사를 위해서는 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인들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가정보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적, 사회적, 그리고 가정보호 환경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가능한 보호 만족도와 영향 요인을 일회 측정에 그치지 않고 5년 동안 종단으로 조사하여 이를 분석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만족도 변화 궤적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정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 변화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만족도를 비교하고 가정보호 요인이 아동의 보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공동 연구원들이 구축한 「한국가정보호아동패널」 종단 연구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가정보호아동패널」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가정보호 아동의 발달 성과를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였다. 대표적인 가정보호 시설인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군집표집 방식을 적용하여 연구대상 아동이 선정되었다. 전국 250여 개의 가정보호 시설 중 시도의 시설 비율을 고려하여 가정보호 시설을 무작위 선정하였고, 아동양육시설 아동 100명, 그룹홈 아동 100명, 가정위탁 아동 300명의 총 500명을 표집 목표 인원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시설의 아동이 설문조사에 동의할 경우 자기보고방식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아동이 100명 이상이 될 때까지 시설을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그 결과, 아동양육시설 137명, 그룹홈 119명, 가정위탁 238명으로 구성된 총 494명의 초등학교 5, 6학년생이 응답하였다. 2011년 최초의 조사가 실시되었고 2015년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까지 매년 2월에서 5월 사이 추적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후속 조사에서의 응답률은 각각 93%, 88%, 77%, 그리고 70%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차에 걸친 494명 아동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보호 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보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Illinois Subsidized Guardianship Waiver Demonstration Project(Westat, 1999)의 16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현재 시

설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시설 선생님은 나를 잘 돌봐 주신다', 그리고 '나는 시설에서 내가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다'와 같이 보호시설 내 양육자와의 관계와 보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만족도를 나타내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가끔 그렇다, 4: 대부분 그렇다, 5: 항상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설문 문항은 가정외 보호유형에 적절하게 진행되었고(예: 그룹홈인 경우 시설 선생님 대신 그룹홈 선생님, 가정 위탁의 경우 위탁부모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하여 16문항 수로 나는 총점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높은 보호 만족도를 나타낸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다. 1차 조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 .95를 나타냈고, 2차-5차 조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 .96-.97로 높은 신뢰 수준을 나타내었다. 보호 만족도 전체 문항은 요청에 의해, 책임연구원의 승인하에 이용가능하다.

(2) 독립변수

① 개인수준 요인

성별. 아동의 성별은 1차 조사의 응답이 사용되었으며 여자 0, 남자 1로 더미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가정외보호 시작 연령. 1차 조사의 응답을 바탕으로 아동이 원가족에서 분리되어 최초로 가정외 보호체계로 들어온 시기의 연도와 아동이 태어난 연도 차이의 값을 구해 연속변수로 가정외보호 연령을 나타내었다.

과거 가정외보호 경험 여부. 아동이 현재 시설 이전 경험한 가정외보호 유무로 과거의 가정외보호 경험을 나타내었다. 1차 조사에서 현재 시설 이전에 가정위탁, 그룹홈, 타 양육시설, 혹은 일시보호시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명목척도로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95)가 개발한 10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가 사용되었고 각 문항은 4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부정적 질문의 4개 문항은 역코딩되었다. 총점 평균값으로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나타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뜻한다. 시계열 변수로 포함된 자아존중감은 1차 조사에서 5차 조사에 걸쳐 Cronbach's alpha 계수 .82-.88로 높은 신뢰 수준을 나타냈다.

② 미시수준 요인

부모애착. 아동과 부모의 애착관계는 부모 및 친구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Armsden and Greenberg, 1987)를 기반으로 윤진아(2010)가 재구성한 부모애착검사 25문항 중, 친애를 나타내는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나는 어머니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아버지와 내 감정과 생각을 함께 나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1차 조사 데이터가 사용

되었으며, Cronbach's alpha 계수 .88로 높은 신뢰 수준을 나타냈다.

부모 만남. 아동이 가정외 보호를 받는 동안 부모와 만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와 만나는 횟수' 그리고 '아버지와 만나는 횟수'의 두 가지 문항이 사용되었다. 5점 항목의 순서형 척도(1: 전혀 만나지 않는다, 2: 1년에 1번 정도, 3: 6개월에 1번 정도, 4: 3개월에 1번 정도, 5: 1개월에 1번 이상)로 부모 또는 모의 만남 횟수가 측정되었고,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부모와의 만남을 나타내었다. 1차에서 5차까지 모두 측정되었으며 시계열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친구 관계. 아동의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서울아동패널과 가정위탁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8문항이 사용되었다.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와 같이 긍정적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 3개와, '내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와 같이 부정적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부정적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친구관계를 의미한다. 1차에서 5차까지 시계열 연속변수로 사용되었으며, 각각 Cronbach's alpha 계수 .67, .68, .73, .75, .80의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사회적지지. 아동의 사회적지지 정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6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위에 도와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외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에 대한 문항 5개가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1: 전혀 없다, 2: 거의 없다, 3: 있는 편이다, 4: 매우 많다)로 측정되었다. 시계열 변수로 포함된 사회적 지지는 1차 조사에서 5차 조사에 걸쳐 Cronbach's alpha 계수 .86-.91로 높은 신뢰 수준을 나타냈다.

③ 가정보호 요인

시설종사자 관심도. 아동에 대한 시설교사의 관심도는 '시설 선생님은 내가 착한 행동을 해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도 주지 않으신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1: 절대 아니다, 2: 때로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매우 흔하다)로 측정되었으며,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문항은 3차 조사에서 부터 측정되어, 결측치가 가장 적은 3차 조사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가정보호 유형.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의 세 가지 가정외 보호 유형은 각각 더미(1 또는 0) 코딩하여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양육시설은 기준집단으로 사용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각각 5개의 조사 시점에서 가정외 보호 유형별 아동의 보호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사용하였다. 또한, 시간(Level-1) 변화에 따른 개인(Level-2)의 보호 만족도 변화를 나타내는 다층구조(Multi-level structure)의 자료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측정된 시계열 변수를 포함한 독립 변수와 보호 만족도의 변화의 상관관계를 모형화하여

검증할 수 있는 다층구조모형(Multi-level modeling: MLM) 분석을 적용하였다. MLM은 보호 만족도의 변화량을 추정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그 변화량의 요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Bickel, 2007). 제한 최대 우도(Restricted Maximum Likelihood)를 사용하는 다층구조 모형은 효율적이고 편향되지 않는 추정계수와 표준편차를 생성한다(Bickel, 2007). 모형의 적합도는 -2 restricted log likelihood, AIC, 그리고 BIC 값으로 나타나며 값이 작을수록 최적화 모형임을 의미한다. 보호 만족도를 포함하여, 모든 척도 변수들의 왜도 절대값은 2보다 작았으며, 첨도 절대값은 7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분포의 정규성이 확인되었다(West et al., 1995). 종속 변수인 보호 만족도는 편향되지 않은 변수 추정치를 제공하고 통계적 검증력을 높이는 EM 알고리즘(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을 사용하여 결측치 보정을 수행하였다(Enders, 2001; Schegger, 2002). 종속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결측치에 대해서는 대응별 결측값 제외(listwise deletion) 방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4.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분석

표본 아동의 명목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아동의 약 51%가 남자, 약 49%가 여자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른 성별 분포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아동 중, 약 24%가 현재 가정외보호 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또 다른 가정외보호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정외보호 유형별 과거 가정외보호 경험의 유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35.23$). 가정위탁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약 12%만이 과거 가정외보호 경험이 있는 반면, 양육 시설과 그룹홈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각각 31%, 39%가 과거에 가정외보호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1> 명목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

변수	전체 N (%)		양육시설 N (%)		그룹홈 N (%)		가정위탁 N (%)	
성별	494		137		119		238	
남	251	(50.8)	78	(56.9)	56	(47.1)	117	(49.2)
여	243	(49.2)	59	(43.1)	63	(52.9)	121	(50.8)
과거 가정외보호 경험 유무***	460		122		115		223	
있다	110	(23.9)	38	(31.1)	45	(39.1)	27	(12.1)
없다	350	(76.1)	84	(68.9)	70	(60.9)	196	(87.9)

*** p < .001

표본 아동의 척도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정외보호 유형별 각 변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비교 집단별 분산의 동질성 검증(Levene's test)을 실시한 후, 집단의 동질성이 만족된 경우, Scheffe 사후 분석을 사용하였고, 집단의 동질성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Games-Howell 사후 분석이 사용되었다.

표본 아동은 평균 5.4세에 가정외보호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였고, 가정외보호 시작 나이는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 아동이 양육시설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에 비해 약 3세 정도 늦은 나이에 가정외보호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부모와의 애착 정도의 전체 평균 점수는 2.49로, 가정외보호 유형별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위탁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이 양육시설과 그룹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에 비해 각각 .40($p < .01$), .32($p < .01$)점 낮은 부모 애착 정도를 나타내었다.

표본 아동의 자존감은 초등학교 5, 6학년인 time 1에서 3.07로 나타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약간의 증가를 보이며, time 5에서는 3.19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정외보호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time 1과 time 3에서만 나타났다. Time 1에서는 가정위탁 아동이 양육시설 아동보다 .25($p < .01$) 높은 자존감이 보였고, time 3에서는 그룹홈 아동이 양육시설 아동보다 .18($p < .05$) 높은 자존감을 나타냈다.

부모와의 만남은 time 1에서 1.94를 나타내, 평균 “1년에 1번 정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점수가 점차 감소하여 time 5에서는 가장 낮은 1.74의 점수를 보고하였다. 모든 측정 시점에서 가정외유형별로 부모와의 만남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me 1에 걸쳐서 time 3까지, 그리고 time 5에서 가정위탁 아동보다 양육시설과 그룹홈 아동의 점수가 각각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ime 4에서는 가정위탁 아동은 그룹홈 아동보다 .74($p < .001$) 낮았고, 그룹홈 아동은 양육시설 아동보다 .49($p < .001$) 낮게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가정위탁 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양육 시설이나 그룹홈 아동에 비해 부모와의 만남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친구관계는 time 1에서 1.72에서 5년 동안 조금씩 증가하여 time 5에서는 1.77로 나타났다. time 1에서, 가정위탁 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양육시설 아동에 비해 .12($p < .01$) 높은 점수를 보고했지만, 이외에는 4회의 다른 측정 시점에서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른 친구관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외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time 1, 2.86에서 점차 증가하여 time 5에서는 3.09를 나타냈다. 가정외보호 유형별로 time 1, time 3, 그리고 time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Time 1과 time 3에서, 그룹홈 아동이 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아동보다 높은 사회적지지를 나타냈다. 사회적지지 time 4의 점수는 그룹홈 아동이 가정위탁 아동보다 .20($p < .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교사의 관심 정도는 평균 3.58로 높은 편이었으며, 가정외보호 유형 중, 그룹홈 아동의 점수가 3.64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척도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

변수	전체아동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ANOVA F	
	N	Range	M(SD)	n	M(SD)	n	M(SD)	n		
가정외보호 나이	492	0-12	5.37(3.49)	137	4.56(3.47)	117	7.56(3.03)	238	4.77(3.27)	34.4***
부모애착	443	1-4	2.49(.93)	123	2.70(.90)	105	2.62(.85)	215	2.30(.96)	8.81***
자이존중감 time 1	480	1.3-4	3.07(.52)	134	2.91(.53)	112	3.07(.51)	234	3.16(.50)	10.02***
자이존중감 time 2	460	1.4-4	3.08(.54)	125	3.05(.53)	102	3.10(.58)	233	3.08(.53)	.26
자이존중감 time 3	425	1.1-4	3.08(.52)	120	2.98(.46)	95	3.16(.51)	210	3.11(.56)	3.62*
자이존중감 time 4	375	1.0-4	3.17(.54)	109	3.16(.48)	81	3.20(.59)	185	3.17(.54)	.15
자이존중감 time 5	337	1.3-4	3.19(.53)	105	3.23(.54)	66	3.25(.57)	166	3.15(.50)	1.43
부모 만남 time 1	477	1-5	1.94(1.09)	133	2.20(1.24)	113	2.31(1.12)	231	1.94(1.09)	22.39***
부모 만남 time 2	458	1-5	1.83(1.03)	124	2.04(1.18)	102	2.18(1.00)	232	1.57(.88)	16.85***
부모 만남 time 3	425	1-5	1.80(.98)	120	1.96(1.06)	94	2.23(1.11)	211	1.51(.77)	21.63***
부모 만남 time 4	377	1-5	1.78(.99)	110	1.80(1.02)	82	2.29(1.07)	185	1.55(.84)	17.30***
부모 만남 time 5	337	1-5	1.74(.96)	107	1.84(1.05)	66	2.20(.98)	164	1.49(.81)	14.77***
친구관계 time 1	402	.75-2.13	1.72(.31)	110	1.65(.34)	93	1.70(.33)	199	1.76(.26)	5.52**
친구관계 time 2	402	.88-2.13	1.74(.29)	106	1.73(.30)	86	1.71(.32)	210	1.75(.29)	.52
친구관계 time 3	375	.75-2.13	1.73(.32)	94	1.69(.31)	81	1.72(.33)	200	1.74(.31)	1.04
친구관계 time 4	326	.75-2.13	1.77(.31)	85	1.75(.35)	76	1.80(.32)	165	1.77(.29)	.50
친구관계 time 5	282	.75-2.13	1.77(.31)	85	1.75(.30)	59	1.81(.36)	138	1.77(.30)	.48
사회적 지지 time 1	483	1-4	2.86(.61)	136	2.77(.71)	116	3.06(.55)	231	2.80(.55)	9.15***
사회적 지지 time 2	450	1-4	2.91(.61)	122	2.84(.63)	98	3.01(.59)	230	2.90(.61)	1.98
사회적 지지 time 3	424	1-4	2.99(.56)	117	2.94(.50)	94	3.14(.56)	213	2.95(.58)	4.53*
사회적 지지 time 4	379	1-4	3.10(.57)	110	3.05(.63)	84	3.25(.53)	185	3.05(.53)	3.93*
사회적 지지 time 5	336	1-4	3.12(.55)	106	3.09(.52)	64	3.23(.59)	166	3.10(.54)	1.54
시설교사 관심도	428	1-4	3.58(.75)	120	3.54(.77)	95	3.64(.71)	213	3.58(.75)	.48

* p < .05, ** p < .01, *** p < .001

2)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른 보호 만족도 비교 분석

가정외보호 유형별 아동의 보호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비교 집단별 분산의 동질성 검정(Levene's test)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5, 6학년인 측정 시점인 time 1과 time 5에서 집단의 동질성이 만족된 반면, time 2, time 3, 그리고 time 4에서는 집단의 동질성이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집단의 동질성이 만족 여부에 따라 각각 Scheffe와 Games-Howell 사후 분석이 사용되었다. ANOVA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가 최초로 측정된 time 1에서 전체 아동의 보호 만족도는 4.15로 나타났고,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룹홈 아동의 보호 만족도는 양육 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만족도보다 각각 .54($p < .001$), .24($p < .01$)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가정위탁 아동이 양육시설 아동보다 .30($p < .001$) 유의미하게 높은 보호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Time 2에서 전체 아동의 평균 보호 만족도는 4.11로 time 1보다 약간 감소하였고,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룹홈 아동의 만족도는 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만족도보다 각각 .43($p < .001$), .25($p < .01$)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아동 간의 보호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가정외보호 유형별 아동의 보호 만족도 비교

보호 만족도	전체아동(N=494)		양육시설(N=137)	그룹홈(N=119)	가정위탁(N=238)	ANOVA
	Range	M(SD)	M(SD)	M(SD)	M(SD)	F
time 1	1-5	4.15(.74)	3.88(.82)	4.42(.59)	4.17(.70)	18.75***
time 2	1.13-5	4.11(.74)	3.93(.69)	4.35(.63)	4.10(.78)	11.10***
time 3	1.25-5	4.10(.74)	3.79(.72)	4.39(.62)	4.13(.75)	22.98***
time 4	2-5	4.19(.63)	4.00(.66)	4.39(.53)	4.20(.63)	12.90***
time 5	1-5	4.24(.62)	4.05(.71)	4.42(.47)	4.26(.60)	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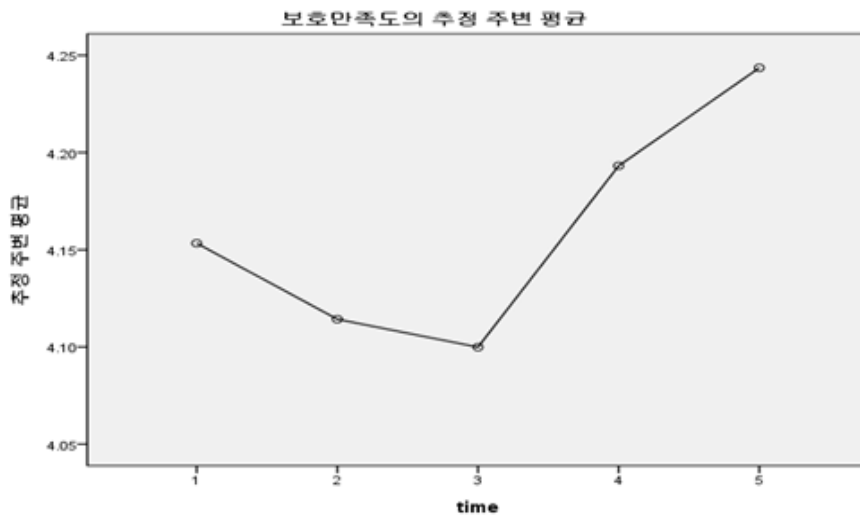
*** $p < .001$

중학교 1, 2학년인 time 3에서 아동의 보호 만족도는 4.10으로 1년 전보다 낮았고,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룹홈 아동의 보호 만족도는 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만족도보다 각각 .60($p < .001$), .26($p < .01$)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가정위탁 아동이 양육시설 아동보다 .34($p < .001$) 유의미하게 높은 보호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time 4에서의 보호 만족도는 4.19로 time 3보다 높았다. 아동의 보호 만족도는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룹홈 아동의 보호 만족도는 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만족도보다 각각 .39($p < .001$), .19($p < .01$)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가정위탁 아동이 양육시설 아동보다 .20($p < .05$) 유의미하게 높은 보호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 측정 시점인 time 5에서 아동의 보호 만족도는 4.24로 가장 높았고,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룹홈 아동의 보호 만족도는 양육시설 아

동보다 .37($p < .001$), 가정위탁 아동은 양육시설 아동보다 .21($p < .01$)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가정위탁과 그룹홈 아동의 보호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time 5를 제외하고 가정외보호 유형 중, 그룹홈 아동의 보호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위탁 아동, 양육시설 아동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ime 5에서 그룹홈과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만족도 차이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3) 다층모델(Multi-Level Modeling) 분석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앞서, 반복측정(repeated measures) ANOVA를 사용하여, 보호 만족도 궤적(slopes)의 경향성을 검증하였다.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는 측정 시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F=4.77$, $p < .01$),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아동의 보호 만족도는 time 1을 시작으로 감소하여 time 3에서 최저 점수를 나타내다가 점차 상승하여 time 5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개체-내 대비 검정(Tests of Within-Subjects Contrasts)에서 시간에 따른 보호만족도 변화형은 선형(linear; $F=7.43$, $p < .01$)과 이차형(quadratic; $F=6.5$, $p < .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곡선(curvilinear)의 변화 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개인의 시간에 따른 보호 만족도 변화는 미세하고 느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선형과 이차형 궤적 모두 분석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Heck et al., 2011).



<그림 1>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가정외보호 만족도 변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아동의 보호 만족도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다층모델 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층모델 검증 방법 적용을 위하여 데이터를 세로형(long-form)으로 재

정렬하고 기초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 개인의 시간 변화에 따른 변량을 나타내는 level 1 분산의 값이 .36, 개인 간 변량을 나타내는 level 2 분산의 값이 .1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관계수 (ICC)는 .25으로 종속변수인 보호 만족도의 분산 중 약 25%가 개인 간의 차이, level 2에서 기인하고, 나머지 75%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오차를 조정하여 좀 더 정확한 유의성 검정 결과를 제시하는 다층모형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Bickel, 2007). 다층모형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 1은 보호 만족도 궤적이 아동 개인 사이에 임의로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초기값과 선형 및 이차형 궤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보호 만족도의 개인 차이는 존재하여 변화율에도 개인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만족도 궤적은 시간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 이차형 시간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모형 2는 모형 1에 가정외보호 아동의 개인수준의 변인을 포함하였다. 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 1에 비해, 낮은 -2 restricted log likelihood, AIC, 그리고 BIC 값은 모형 1이 기초모형보다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성별, 이전의 가정외보호 경험 유무,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통제했을 때, 가정외보호 시작 연령은 아동의 보호 만족도 궤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개인수준의 변인을 통제했을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 또한 보호 만족도 궤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존감의 변화량과 보호 만족도의 변화량은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과 현재 시설 이전의 가정외보호 유무는 아동의 보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형 3은 모형 2에 미시수준의 변인을 추가하였다. 모형 1에 비해, -2 restricted log likelihood, AIC, 그리고 BIC의 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의 변인 중에서, 가정외보호 시작 연령의 유의미성이 사라졌지만, 자존감은 미시수준의 변인을 통제했을 때도 보호 만족도 궤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수준 변인 중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보호 만족도의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수준의 변화량과 보호 만족도 변화량은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친구관계와 원가족 변인인,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부모와의 만남은 보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외보호 유형과 시설교사의 관심도를 가정외보호 변인으로 추가한 모형 4는 모형 3보다 더 낮은 -2 restricted log likelihood, AIC, 그리고 BIC 값을 보고함으로써, 모형 2보다 향상된 모형임을 나타내었다. 개인 수준의 변인들 중에서, 아동의 자존감이 미시수준 변인과 가정외보호 유형을 통제했을 때도 보호 만족도 궤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수준의 변인 중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가정외보호 유형을 함께 통제했을 때도 보호 만족도 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변인과 미시수준 변인을 통제 했을 때, 가정외보호 요인 중, 가정외보호 유형이 아동의 보호 만족도 궤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 아동에 비해, 가정위탁 아동과 그룹홈 아동이 높은 수준의 보호 만족도 궤적을 보고했다. 그룹홈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을 비교하기 위해 가정위탁 아동을 비교 집단으로 사용한 별도의 분석에서, 그룹홈 아동은 가정위탁 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만족도 궤적을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경계수준의 유의성을 나타냈다

(회귀계수=-.21, 표준오차=.12, p=.09). 따라서 양육시설 아동의 보호 만족도 궤적은 그룹홈과 가정위탁 아동보다 낮았고, 그 차이는 개인수준 변인과 미시수준 변인을 통제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만족도 궤적은 개인수준 변인과 미시수준 변인을 통제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다층모델 분석 결과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Level 1								
절편	4.23***	.06	3.82***	.12	3.70***	.16	3.36***	.26
Time	-.10*	.04	-.10*	.05	-.12	.03***	-.13***	.03
Quadratic Time	.02**	.006	.02**	.007	.02***	.004	.03***	.01
Level 2								
<i>개인수준 요인</i>								
성별(여자)			-.06	.04	.03	.07	.06	.08
가정외보호 시작 연령			.01*	.006	.01	.01	-.001	.01
과거 가정외보호 경험(무)			.04	.05	-.03	.09	-.001	.10
자아존중감			.12***	.03	.07*	.03	.06*	.03
<i>미시수준 요인</i>								
부모애착					.04	.04	.07	.04
부모만남					-.001	.02	.01	.02
친구관계					-.04	.04	-.04	.04
사회적지지					.08**	.02	.06*	.03
<i>가정외보호 요인</i>								
시설종사자 관심도							.01	.05
가정위탁(양육시설)							.40***	.09
그룹홈(양육시설)							.61***	.13
Model fit								
-2 restricted log likelihood	4970.46		3823.84		4233.28		4046.49	
AIC	4978.46		3845.84		4285.28		4098.49	
BIC	5001.76		3906.96		4422.38		4234.11	

() 비교집단; *** p < .001, ** p < .01, * p < .05

5. 결론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그리고 가정위탁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외보호 만족도를 5년 동안 추적 조사하여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라 보호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세 그룹의 아동 모두 5차 조사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어, 장기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요보호 아동은 각각의 가정외보호 서비스 환경에 적응도가 높아지고, 가정외보호 삶에 만족하게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보호 유형에 따라 보호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룹홈 아동의 보호 만족도는 1-4차 조사에 걸쳐 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정위탁 아동이 양육시설 아동보다 보호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5차 조사에서도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그룹홈 아동의 보호 만족도는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변수를 통제한 다중구조 모형 분석에서는 그룹홈과 가정위탁은 양육시설에 비해 보호 만족도를 높이는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고, 그룹홈과 가정위탁의 보호 만족도 차이는 경계 수준의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그동안의 가정보호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가정위탁이 양육시설에 비해, 그룹홈이 양육시설에 비해 보호 효과가 높음을 밝히고, 그 이유를 아동 수 대비 보호 인력 부족과 큰 시설 규모를 지적하며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의 가정과 같은 환경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김경희·반정호, 2005; 정익중 외, 2012; Kang et al., 2014; Lee et al., 1997). 따라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 모두, 가정보호원칙을 기반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배치를 우선 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룹 형태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아동보다 만족도가 낮다는 해외의 사례와 달리(Gil and Bogart, 1982; Wilson and Conroy, 1999), 본 연구는 그룹홈 아동의 보호 만족도가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만족도보다 더 높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설로 분류되는 그룹홈에 비해 가정위탁의 경우 관련 규정, 예산 등 정책적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가정위탁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일 수 있다. 특히, 가정위탁의 경우, 그룹홈은 요보호 아동이 원가정에서의 외상을 극복하고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룹홈에 종사하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보호 종사자가 전문 교육을 받은 아동복지전문가이며, 다양한 치료, 상담 및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가정위탁은 보호받고 있는 가정의 환경과 가정위탁 유형에 따라 생활 여건과 서비스가 달라지는 지는데(노충래 외, 2009), 특히 우리나라의 위탁가정 대다수가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위탁으로 생활여건과 주거 환경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그룹홈은 지역사회 내의 낙인 예방 장치와 물리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규제를 제도화하고 있어, 요보호 아동이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주거 환경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에게 만족스러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소규모화,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과 더불어(정익중 외, 2012), 가정위탁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의 기회 제공(정익중 외, 2012), 소규모의 시설이나 가정위탁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전문가 연계 서비스, 요보호 아동의 보다 안락한 생활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방안, 지역사회 내에서의 낙인 예방을 위한 사회적 장치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아동의 생활·주거 환경 전반에 걸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보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가정보호 유무와 가정보호를 시작한 연령과 같은 가정보호와 관련한 개인의 경험은 보호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자아존중감이 보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다른 사회·환경적 요인을 통제했을 때도 자아존중감은 보호 만족도의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총래 외(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부정적인 경험이나 외부의 사건에 대해 영향을 덜 받거나 그러한 경험을 잘 극복하고 현재의 삶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고난이나 위기, 스트레스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여 긍정적·성공적 발달과 성취를 이끌어 내는 회복탄성력이 높은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Buckner et al., 2003). 따라서 아동의 가정외보호 적응을 돕고 보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요보호 아동과 가장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코칭과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진 성장 프로그램(강기정·정은미, 2003; 김숙경, 2007)과 집단 미술치료(강희정 외, 2016)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형 1에서, 가정외보호시작 연령이 높을수록 보호 만족도 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소 연령이 낮을수록 시설 적응도가 높다는 결과(정원철·이화명, 2014)와 차이가 있다. 가정외보호 시작 연령과 보호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가정외보호 기간은 변수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정외보호 기간이 오래될수록 대리 가정에 대한 애착도를 높여 보호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Franshel et al., 1990), 가정외보호 기간과 보호 만족도의 관계도 후속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적지지 그리고 가정외보호 유형이 보호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성장 발달의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노총래 외, 2007; 정익중 외, 2012; 정원철·이화명, 2014; Daining and DePanfilis, 2007; Yates and Grey, 2012; Jones, 2013; Lee, 2016). 특히 원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가정외보호 아동과 같은 취약 아동에게는 친구, 선생님, 가정외보호 종사자와 같은 생활 속의 주변인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다(Collins et al., 2010). 따라서 요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정원철·이화명, 2014). 가정외보호 아동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종사자를 위한 교육(정원철·이화명, 2014)과 더불어, 종사자가 개별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수와 업무량과 관련하여 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돕기 위한 사회기술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정원철·이화명; 2014). 원가족과의 분리, 가정외보호의 상황 등 비슷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내의 또래 멘토(peer mentor)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보호 만족도에 대한 가정외보호 유형과 사회적지지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밝혀진 반면, 부모 애착과 만남과 같은 원부모와 관련된 요인들이 가정외보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 또한 원부모가 요보호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원가족과의 잦은 만남이 가정외보

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Festinger, 1983; Fanshel et al., 1990),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원가족과의 연락 빈도가 낮을수록 요보호아동의 시설 적응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정원철·이화명, 2014). 역기능적인 친부모와의 지속적인 관계는 오히려 요보호 아동의 가정외보호 적응과 발달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들이 요보호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원부모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견하지 못했다(Edmond et al., 2006; Jones, 2013; Lee, 2016). 종합해보면, 과거의 원부모보다 현재의 생활 환경과 현재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지지가 요보호 아동에게는 더 의미 있는 체계이며, 가정외보호 적응과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많은 아동이 가정외보호를 떠나게 되면 궁극적으로 원가족을 만나게 되므로(Courteny et al., 2004), 가정외보호 종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가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부모 애착의 경우, 본 연구의 조사시점이 아동이 가정외보호를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아동이 이미 부모와 분리된 기간이 오래되었을 경우, 아동에게 현재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보호 만족도와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의 보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다층 모형 분석에서 모형에 따라 적합도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형이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를 설명하는 최적화된 모형이 아닐 수 있음을 제기한다. 결국 자료와 보유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해, 선행 연구에서 보호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학대와 같은 가정외보호 원인, 주양육자의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사회환경이론에 따르면, 가정외보호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역사회, 학교, 문화 등 더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델에서 포함하지 못한 보호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조사하고, 더 최적화된 모형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정외보호 유형인,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을 비교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대표적 가정외보호 유형에 대한 아동의 직접적 만족도를 장기간 추적 조사하여 비교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아동양육시설만을 비교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토대로 소규모의 가정과 같은 환경 지향을 주장해온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그룹홈 아동의 보호 만족도가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정외보호 유형이 아동의 보호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임을 밝힘으로써 그룹홈과 가정위탁에 대한 보호 효과 비교 연구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그룹홈이 가정위탁보다 아동의 보호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는 없다. 특히, 5차 조사에서 그룹홈과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위탁만이 요보호아동을 위한 최상의 대체 가정서비스가 아니라는 주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서로 다른 가정외보호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가정외보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룹홈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 가정외보호 서비스 비교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기정·정은미, 2003,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성장 프로그램 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171-187.
- 강희정·공마리아·최은영, 2016, “집단미술치료가 가정위탁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2(2): 127-160.
- 권세은·이순형, 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의 비교”, 『한국아동학회지』, 2: 107-120.
- 김경희·반정호, 2005, “대체가정 서비스 유형에 따른 아동의 발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설보호 아동과 위탁가정보호 아동의 입양 전 신체적 발달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9: 107-139.
- 김숙경, 2007,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성장훈련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아동복지연구』, 5(2): 1-21.
- 김지영·서영숙, 2002, “가정위탁모의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 연구”, 『아동연구』, 15(2): 1-23.
- 노혜련·장정순, 1998, “육아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4: 45-67.
- 노충래·박근혜·서지원, 2009, “위탁아동의 가정위탁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정위탁 유형의 개인, 위탁부모 및 서비스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 155-185.
- 보건복지부, 2009,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 2016a, 『아동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 2016b, 『아동분야 사업안내』.
- 석주영·안옥희·박인진, 2003,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특성 및 상호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5-26.
- 석주영·안옥희·박인진, 2004,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 및 유머감 각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2): 237-250.
- 양심영, 2003, “가정위탁서비스의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5): 131-148.
- 윤진아,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배근, 1989,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만의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중심으로” 『동광』, 86: 69-88.
- 이송이, 1999, “가정위탁보호 양육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2): 43-62.
- 정선옥,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4: 145-168.
- 정원철·이화명, 2013,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0(4): 175-197.
- 정원철·이화명, 2014,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시설 적응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1(3): 243-265.
- 정익중·전종설·우석진·강현아·이정애, 2012,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linder-Oaxaca 분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3(4): 107-127.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6, “연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 http://www.fostercare.or.kr/data/data_02.php?BoardMode=view&UID=628&CurrentPage=1&searchKey=&SEL_FIRST_WORD
- 하승민·임동호, 2006,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4(1), 145-171.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2016, “2016년 아동공동생활가정 현황(2015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http://www.grouphome.kr/pages/page_28.php?act_module=board_board_2&act_type=read&sn=9130&page=1
- Brooks, D. and Barth, R. P., 1998,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of drug-exposed and nondrug-exposed children in kinship and non-relative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2): 85-106.
- Bickel, R., 2007, *Multilevel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It's just Reg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uckner, J. C., Mezzacappa, E., and Beardslee, W. R., 2003, “Characteristics of resilient youths living in poverty: The role of self-regulatory process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1): 139-162.
- Chapman, M. V., Wall, A., and Barth, R. P., 2004, “Children's voices: the perceptions of children in foster car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3): 293.
- Collins, M. E., Spencer, R., and Ward, R., 2010, “Supporting youth in the transition from foster care: Formal and informal connections”, *Child Welfare*, 89(1): 125-43.
- Courtney, M. E., Terao, S., and Bost, N., 2004, *Midwest Evaluation of the Adult Functioning of Former Foster Youth: Conditions of Youth Preparing to Leave State Care*,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 Courtney, M. E. and Zinn, A.(2009, “Predictors of running away from out-of-home care”,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31(12): 1298-1306.
- Courtney, M. E., Piliavin, I., Grogan-Kaylor, A., and Nesmith, A., 2001, “Foster youth transition to adulthood: a longitudinal view of youth leaving care”, *Child Welfare*, 80(6): 685-717.
- Daining, C. and DePanfilis, D., 2007, “Resilience of youth in transition from out-of-home care to adulthood”,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9: 1158-1178.
- Delfabbro, P. H., Barber, J. G., and Bentham, Y., 2002, “Children's satisfaction with out-of-home care in South Australia”, *Journal of Adolescence*, 25(5): 523-533.
- Dunn, D. M., Cullhane, S. E., and Taussig, H. N., 2010, “Children's appraisals of their experiences in out-of-home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10), 1324-1330.
- Enders, C. K., 2001, “A primer on maximum likelihood algorithms available for use with missing dat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 128-141.
- Edmond, T., Auslander, W., Elze, D., and Bowland, S., 2006, “Signs of resilience in sexually abused adolescent girls in the foster care system”,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5(1): 1-28.
- Fanshel, D., Finch, S. J., and Grundy, J. F., 1990, *Foster Children in a Life Course Perspectiv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estinger, T., 1983, *No One ever Asked us-A Postscript to Foster Ca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ox, A., Berrick, J. D., and Frasch, K., 2008, "Safety, family, permanency, and child well-being: What we can learn from children", *Child Welfare*, 87(1): 63-90.
- Gunnar, B. and Grotevant, A., 2000, "International adoption of institutionally reared children: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677-693.
- Graham, J. W., 2009, "Missing data analysis: Making it work in the real worl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549-576.
- Heck, R. H., Thomas, S. L., and Tabata, L. N., 2011, *Multilevel and longitudinal modeling with IBM SPSS*. Taylor & Francis Group, New York.
- James, S., 2011, "What works in group care?: A structured interview of treatment models for group homes and residential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 308-321.
- Johnson, P. R., Yoken, C., and Voss, R., 1995, "Family foster care placement: The child's perspective", *Child Welfare*, 74(5): 959-974.
- Jones, L., 2013, "The family and social networks of recently discharged foster youth".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6(3): 225-242.
- Kang, H., Chung, I. J., Chun, J., Nho, C. R., and Woo, S., 2014, "The outcomes of foster care in South Korea ten years after its foundation: A comparison with institutional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9: 135-143.
- Lee, R., Chun, J., Chung, I., Kang, H., Nho, C. R., and Woo, S., 2017, "Kinship foster care and school adjustment: Evidence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in South Korea", *Child Youth Care Forum*, 46(3): 335-356.
- Lee, S. J., 2016, "Independent Living Programs and Changes in Resilience of Transition-age Foster Care Youth",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Doctoral Dissertation.
- Lee, T. S., Hahm, C. H., and Lee, Y. K., 1997, *Small-scale Child Welfare Centers*. Seoul: Human and Welfare Books.
- Leve, L. D., Harold, G. T., Chamberlain, P., Landsverk, J. A., Fisher, P. A., and Vostain, P., 2012, "Practitioner review: Children in foster care-vulnerabilities and evidence-based interventions that promote resilience process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3(12): 1197-1211.
- Minty, B., 1999, "Annotation: Outcomes in long-term foster family 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7): 991-999.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2,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 maltreatment 2000: Reports from the States to the 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s.
- West, S. G., Finch, J. F., and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56-75,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edited by Hoyle, R. 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Wilson, L., and Conroy, J., 1999, *Satisfaction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In Family Foster Care in the Next Century*, New Brunswick, USA and London, UK: Transaction Publishers.
- Yates, T. M., and Grey, I. K., 2012, "Adapting to aging out: Profiles of risk and resilience among emancipated foster yout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4(02): 475-492.

Longitudinal Study on Care Satisfaction of Children in Out-of-Home

– Comparison among Residential Care Centers,
Group Homes, and Foster Homes –

Lee, Sang Jung

(Ewha Womans University)

Kang, Hyunah

(Sookmyung Women's University)

Nho, Choong-Rai

(Ewha Womans University)

Woo, Seokjin

(Myongji University)

Chun, JongSerl

(Ewha Womans University)

Chung, Ick-Joong

(Ewha Womans University)

There has been no studies that compare services of residential care centers, group homes, and foster homes although out-of-home care services differ from each other depending on the types of out-of-home care. This study compared care satisfaction of 481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centers, group homes, and foster homes for five years. Futhermore, factors that predict care satisfaction of the children were identified using multi-level modeling analyses. As results, this study found that care satisfaction of children in group homes was the higher than that in foster homes and residential care centers. In addition,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types of out-of-home service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changes in care satisfac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suggestions to help children adapt to out-of-home care and improve out-of-home care satisfaction were made.

Key Words: Out-of-Home Care Service, Care Satisfaction, Residential Care Centers, Group Homes, Foster Homes

[논문 접수일 : 17. 03. 03, 심사일 : 17. 04. 12, 게재 확정일 : 17. 06. 05]